1년이상 발효시킨 흑초…남녀노소 건강식품 인기

향토기업 열전

비니거파크

최진섭 대표

최근 다이어트 열풍이 불며 쉽게 마실수있는 식초가 인기를 끌고있다.

특히 현미식초를 발효시킨 '흑초'는 필수 아미노산 등이 풍부해 식초의 왕이라고 불리며 건강음료로 자리잡았다.

이가운데 보성군 오봉산 자락 노지에서 자연발효 흑초를 생산하는 비니거파크가 소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니거 파크 최진섭 대표는 2013년 회사 설립 후 3명의 직원들과 명품 현미흑초를 만들기 위해 오랜기간 연구를 진행했다.

최 대표는 사업 시작 후 최상의 현미흑초 구현을 위해 200년 전통의 일본 가고시마 흑초마을을 직접 찾아 온도와 기후 등을 조사했다. 비니거파크는 4년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도와 기후가 비슷한 보성에서 흑초생산을 시작해 제품을 생산하고있다.

비니거 파크의 현미 흑초는 실내에서 발효되는 타 제품들과 달리 무형문화재인 이학수 옹기장인의 전통항아리에 담아 1년이상 노지에서 자연발효시킨다. 비니거 파크는 자연발효한 현미흑초와 보성 녹차를 첨가한 현미 녹차흑초 단 두가지만을 집중 생산 하고있다.

자연의 온도가 중요한 탓에 비니거파크의 흑초는 알콜발효와 초산발효가 가장 잘 이뤄지는 5월부터 6월까지 1년에 단 한번 생산된다.

흑초 안에 들어가는 현미 또한 100%국내산 유기농으로 주문재배하고 있다. 식초의 맛을 좌우하는 물은 비니거파크의 부지 내 지하 80m 맥반석 천연 암반수를 끌어올려 담는다.

자연발효한 흑초의 맛을 인정받아 2016년에는 제 23회 광주세계김치축제 발표음식 전시콘테스트에서도 대상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는 발효식초전국품평회에서 20개의 제품과 블라인드테스트 끝에 대상을 받는 등 맛과 품질을 인증받고있다.

비니거 파크의 흑초는 노지 내 항아리에서 1년간 숙성과정을 거치고있다. /비니거 파크 제공

보성 녹차 등 지역 농산물 활용 · 지역사회와 상생

체험 등 가능한 흑초테마파크 조성…2021년 준공

최근에는 국내 최초 흑초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해 비니커 파크 부지 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니거 파크가 위치한곳은 187만㎡(57만평)의 청정지역으로 보성군 득량면 7만여평의 해평저수지와 등량만 바다, 칼바위와 용추 폭포로 유명한 오봉산 10만부지의 편백나무 숲에 둘러싸여 있어 휴양지로도 손색이 없다.

최 대표는 이곳에 흑초를 주 테마로 한 천연발효흑초단지 및 힐링마을 등 '흑초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다.

천혜의 자연 속에서 흑초의 특징을 살려 관광객들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수 있도록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 대표는 "청정지역 보성에는 녹차 이후 관광상품이 없었다. 흑초를 통해 새로운 지역일자리 창출과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싶다"며 "2021년에는 체험까지 가능한 흑초테마파크가 생길것이다. 비니거 파크를 찾는 사람들 모두 흑초를 통한 힐링과 웰빙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수영 기자

비니거 파크 대표제품인 녹차 흑초.

눈에 쏙 경제지표

코스피	코스닥	금리(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2,053.79 (-21.97)	670.39 (-14.94)	1.80 (-0.03)	1,126.50 (+6.70)

홀리데이 인 광주, 시즌케이크 출시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의 디오니소스 카페&바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라 펫 드 노엘(La Fete de Noel)' 시즌 한정 케이크를 선보인다.

라 펫 드 노엘 케이크는 신선한 생크림 케이크 위에 제철을 맞은 생 딸기를 듬뿍 올려 상큼한 딸기와 부드러운 생크림을 동시에 맛볼 수 있다.

12월 한 달 동안 디오니소스 카페&바를 통해 주문 가능하며 가격은 4만4,000원(VAT 포함)이다.

자세한 문의나 예약은 전화(062-610-7063) 또는 홈페이지(http://higwangju.com/)를 통해 가능하다. /길용현 기자

한국무역협회 지역본부는 10일 '광주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개최했다.

악재속 광주지역 수출기업 빛났다

무역협회, '광주 수출 탑 및 유공자 포상' 전수식

연호엠에스 7천만불탑 등 27개사 수출의 탑 수상

미·중 관세전쟁 등 글로벌 악재속 전반적으로 수출 성과가 부진했던 가운데 광주지역 수출기업들은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한국무역협회광주전남지역본부는 10일 라마다 광주 호텔에서 제55회 무역의 날을 기념한 '광주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전수식'을 열고 지역 우수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의 탑 시상과 무역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

올해 광주시에서는 7천만불탑을 수상한 ㈜연호엠에스를 비롯해 총 27개 수출기업이 수출의 탑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수출기업 및 수출 유관기관 임직원 32명도 수출진흥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 포상을 수상했다.

수출의 탑은 ▲㈜연호엠에스가 7천만불탑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3천만불탑으로 ▲㈜엔에이치인터내셔널 ▲디스커버믹스테크 ▲지오씨 주식회사, 2천만불탑은 ▲㈜탑인프라 1천만불탑은 ▲㈜대웅에스엔티 ▲비제이코리아주식회사 ▲주식회사성진글로벌 ▲포미(주), 5백만불탑은 ▲㈜디에스피 ▲㈜서치메디컬 ▲㈜씨엠텍 ▲㈜월드플러스전자 ▲㈜지오티 ▲㈜하나텍 ▲대신정보통신(주) ▲엠피닉스(주)가 각각 수상했으며, 3백만불탑은 ▲㈜티디엠 1백만불탑은 ▲㈜샵테크 ▲㈜신광씨링 ▲㈜신라에프에이 ▲㈜씨아이에스 ▲㈜에스엠지 ▲비드바이코리아 ▲세림테크 주식회사 ▲송우기전 ▲알엠아이텍 주식회사가 각각 수상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주동필 본부장은 "올해 무역의 날 기념 행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해 더욱 뜻 깊다"며 "이번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전수식이 광주 무역인들의 수상을 축하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삼성바이오 상장유지 결정…오늘 거래 재개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4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삼성바이오 주식은 11일부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된다.

10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사하는 기업심의위원회 회의(이하 기심위)를 가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외부위원들도 구성된 기심위가 기업의 계속성과 투명성, 투자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기심위는 법률과 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됐다. 기심위는 삼성바이오 영업의 지속성·재무상태 건전성·공시 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투자자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해 왔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예상보다 서둘러 결론을 낸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 기자